

모의 피부과 증례를 이용한 국내 일부 웹사이트 의료상담에서 응답의 정확성 평가

이대선, 함귀홍, 박일환, 유선미, 정유석

단국대학교의료원 가정의학과

연구배경: 인터넷 이용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인터넷상의 의료정보 제공자와의 의료상담도 증가하고 있다.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선 체계적인 인터넷 의료상담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. 앞으로 의료상담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.
방법: 인터넷상에서 게시판 형태의 의료상담을 포방한 2000년 8월에 79개 웹사이트와 2002년 5월에 88개의 웹사이트에 급성피부과적질환을 가진 가상의 환자에 대한 질문을 올렸다. 의사 또는 의료정보 제공자의 답변을 한 달간 모니터링하여 답변여부 및 답변까지의 기간, 그리고 답변내용의 정확성을 평가하였다.

결과: 질문에 응답한 사이트는 2000년도에 38개(48.1%)였고 2002년도에 73개(83.0%)로 2002년도가 응답률이 유의하게 높았다. 모든 연도에서 병·의원군이 기타군보다 응답률이 유의하게 높았다. 답변까지 걸린 기간도 2000년도보다 2002년도가 유의하게 짧았다. 답변내용 중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비율도 2002년도가 유의하게 높았다. 합병증 등 예후를 언급하는 비율과 입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함을 언급하는 비율도 2002년도가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.

결론: 인터넷 의료상담의 답변은 병·의원군과 기타군 모두에서 2002년도가 2000년도보다 응답률이 높았다. 답변기간도 2002년도가 짧았으며 답변의 정확성에서도 2002년도가 나아지고 있었다. 병·의원군과 기타군 사이에 답변기간과 답변의 정확도는 차이가 없었다.

중심단어: 인터넷, 의료상담, 의료정보